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하루 16,200톤 쓰레기 도시 서울의 환경지키기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소각장 설치 및 매립지 확보 어려움 커

서울시 쓰레기 문제 도맡아

1,100만 인구의 거대한 도시로 자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나아가 세계 속의 서울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은 이제 그 풍부해진 시민의 삶 만큼이나 많은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다.

도시의 인구집중, 끊임없는 개발과 판매전쟁,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쌓여만 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겨를이 없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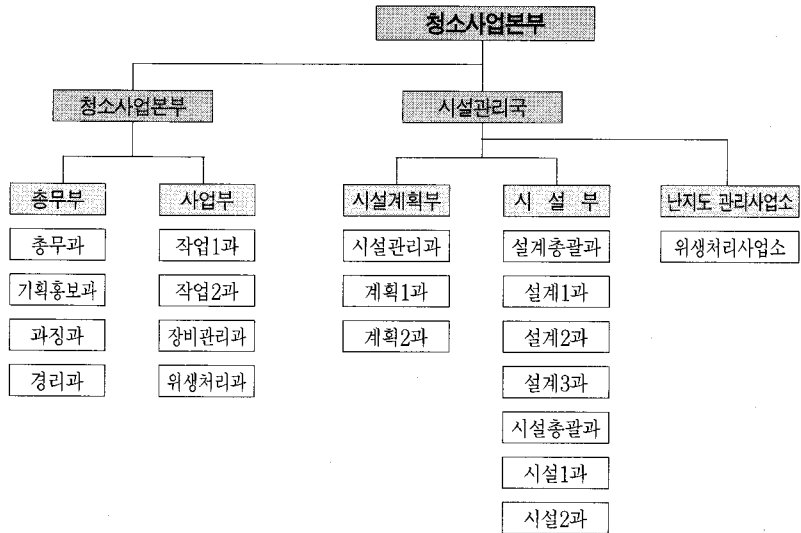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1일 16,200톤이며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2년 2월 2국4부18과 2개사업소를 갖춘 청소사업본부(본부장 김진호)를 발족시키고 서울시의 청소사업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1일 쓰레기 발생량 16,200톤

“서울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6,200톤(8.2톤 차량 2,000여 대분)으로 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1.4kg의 쓰레기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는 외국의 1kg 내외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중 8,500톤 정도가 시에 의해서, 나머지 7,700톤이 청소대행업체에 의해 수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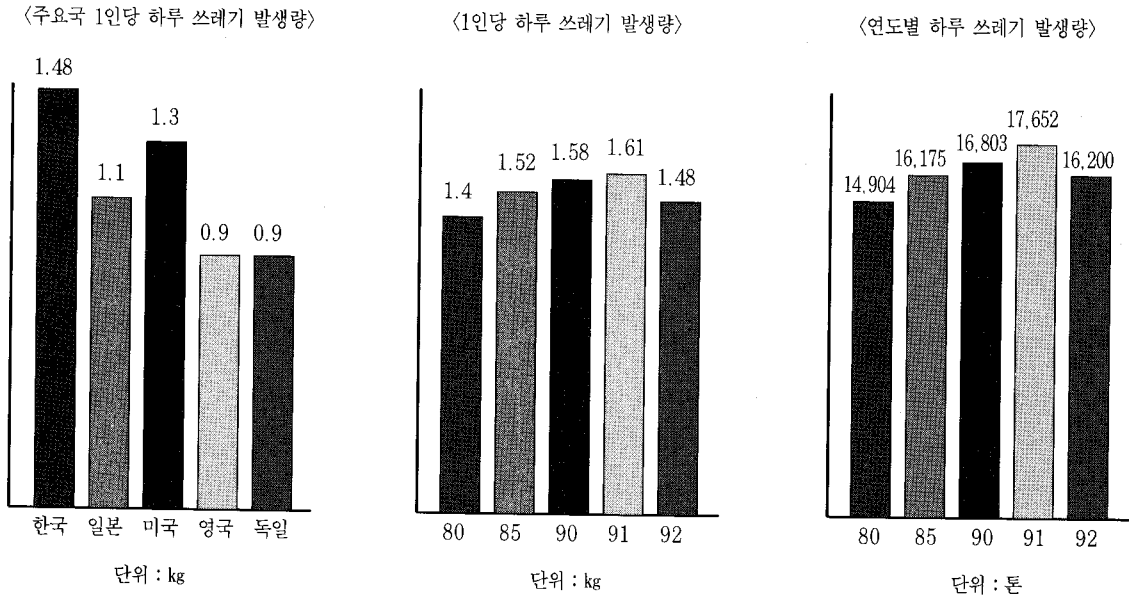
(표 1) 조직표



(표 2) 각 부서 업무내용

부 명	분 달 업 무
총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승진, 임용, 전보, 보수, 연금, 기타 직원 후생복지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근로조건 개선등 ○ 기획업무, 기본운영 및 중·장기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배정 및 자금관리, 예산 지출 및 결산 ○ 홍보물 간행 및 홍보매체 이용 홍보사항 ○ 국회, 지방의회, 정단 관련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 세입 기본계획 수립·조정, 세입 요율조정, 자원관리 등 ○ 공사도급, 계약, 구매등에 관한 사항, 물품 및 재산관리
사 업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폐기물 수거작업 관리 총괄, 구·동 지도감독 ○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청소장비의 개선, 보급에 관한 사항 ○ 분뇨, 오니처리 종합계획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시설계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시설 운영관리, 부지매입, 투자재원 관리 ○ 매립지 운영 및 수송도로에 관한 사항 ○ 분뇨, 오니처리 시설 계획 및 사업소 지도감독
시 설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시설 공사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청소시설 준공후 운전계획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건설
난 지 도 관리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의 종말처리 및 안정화사업 추진 ○ 쓰레기의 반입사항,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
위 생 처 리 사 업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의 종말처리 및 부산물 처리 ○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발전

[표 3] 쓰레기 발생량



해 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기획홍보과 배상필과장은 쓰레기 증가의 원인은 상주인구 증가, 음식물 찌꺼기 급증, 과대포장, 1회용품의 과다 사용, 신모델 개발 및 판매공급, 대형 쓰레기 급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감량화, 재활용 분리수거, 매립 및 소각 4가지 방법을 통해 쓰레기 수거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줄이는 것이 최선, 시민운동 절실

“재활용 이전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죠. 현재와 같이 계속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매립장 확보 등 최종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시민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이나 불필요한 장식을 억제하고 소비자도 과소비를 자제하면서 불용품의 교환 사용을 늘려가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라고 당부하는 기획홍보과 이종하 주임은 앞으로도 청소사업본부는 감량화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협회, 국민운동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음식쓰레기, 1회용품 사용억제, 제조 및 유통업체의 과대포장 자제, 알뜰시장과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마다 쓰레기 양을 줄여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루 재활용품 발생량은 1,800톤이며 재질별 재활용률은 [표 4]와 같다.

청소사업본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시내 942개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이미 설치하여 놓고 있으며 일반 주택가에도 이동식 보관용기를 설치,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해 지정된 장소에 시민 스스로가 재활용품을 내놓도록 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청과 시민이 합심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한 결과 92년에 총 64,669톤의 재활용품을 재생하여,

[표 4] 재질별 재활용률(92년 기준)

구분	종이(의류)	유리병류	알미늄캔	철제캔	플라스틱류
배출량(톤)	1,057	295	2	86	360
구성비	59%	16%	1%	5%	9%

25억원에 달하는 판매수익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도 많이 절약하게 됐으며, 92년말의 1일 쓰레기 발생량만 해도 91년에 비해 약 8.4%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사업본부는 앞으로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확보, 중간집하장 설치 등 사업을 전개해 계속 나갈 계획이다.

소각장 설치와 매립지 확보 어려워

“쓰레기 처리중 가장 어려움은 소각장 설치와 매립지 확보입니다. 지난 78년 이래 사용해 오던 난지도 매립지는 이제 9,100만톤 정도의 쓰레기 매립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폐쇄되고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공동투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 627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중 123만평을 우선 개발, 92년 11월부터 향후 25년간 매립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의 팽배로

김포도 처음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방법중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소각은 불과 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이미 확보된 수도권 매립지도 25년이면 수명이 다되어 사실상 더 이상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및 환경보존, 그리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소각처리 방식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경준 시설관리국장은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를 공해없이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13개소의 자원회수시설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선진화되어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고 주민을 위해 난방비 혜택, 지역복지시설 설립, 정서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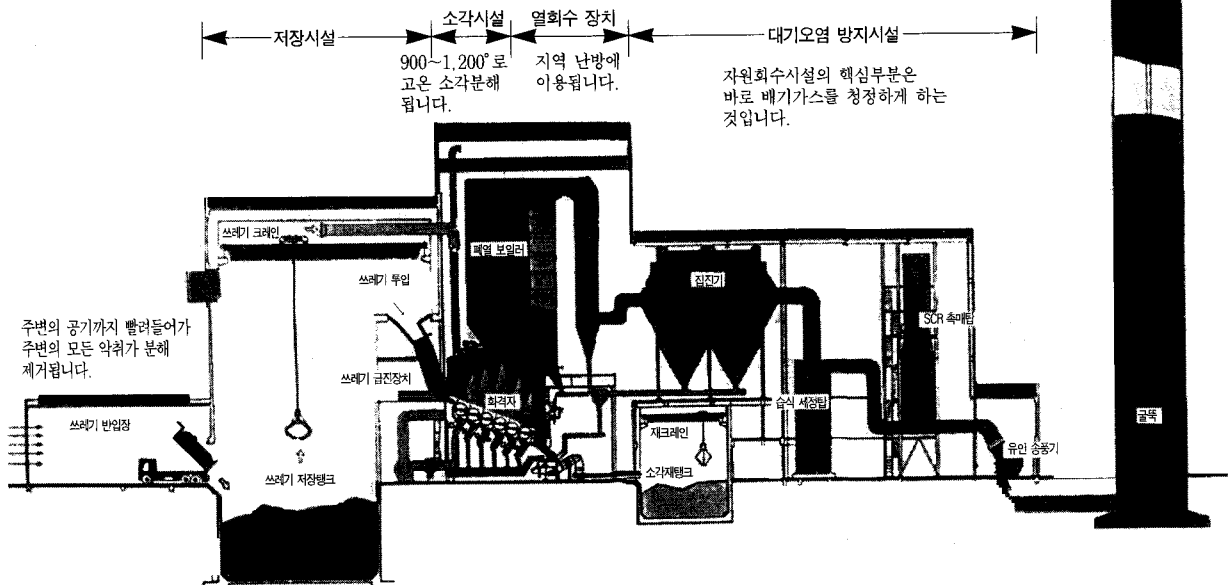
목동,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

서울시가 지난 92년부터 벌이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현재 상계동과 목동에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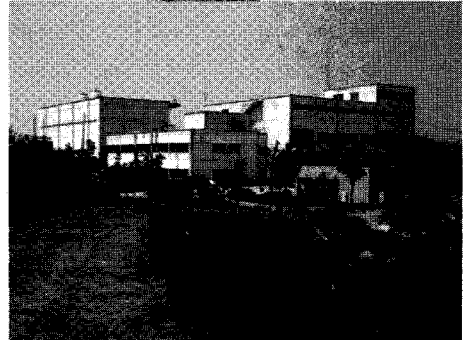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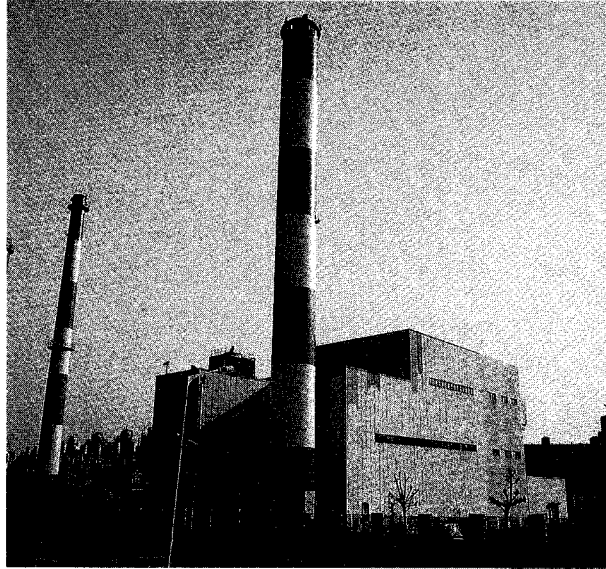
상계동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일일 800톤이며 783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했다. 9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완벽하게 쓰레기를 소각하고 폐열을 회수하여 연소후 배기가스는 첨단 공해방지 설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20여종을 허용치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저감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목동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은 3백49억9천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소각능력은 1일 500톤이다. 95년 8월 공사가 완료되며 소각폐열을 이

(그림 1) 소각장치 조감도



(그림 2) 목동(위)과 상계동(아래) 자원 회수시설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사업본부는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정착,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자원회수시설 건설,
수도권 매립지 조성,
청소장비의 기계화 및 적화장을
정비해야 하며 제조업체와
시민들은 과대포장 금지와 시민운동
전개를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용한 지역난방 공급으로 에너지 자원의 재활용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94년도에는 지난해부터 규제해 오던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규칙'을 더욱 강화해 단속할 예정이라는 사업부 작업2과 박철하 씨는 양질의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환경적응형 포장재를 개발하고 과대포장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화, 산업화는 우리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었지만 우리가 사용한 생활용품이 쓰레기가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과소비 억제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업체의 적정포장, 시민의 사용후 처리, 정부의 법적 규제 강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선하 기자